



시로 읽는 성보순례
석굴암
국보 제24호 석굴암석굴
통일신라시대 ▶2면

현대불교

지혜로운 이는
슬기의 눈으로 나쁜 욕설과 비방을
능히 참는다. <잡보장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3월 21일) · 주간

제 883 호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노후걱정 없이 수행에만 전념하자”

조계종 선원수좌회 노후복지법인 설립

나이가 많고 연로해 선방에 방부를 들일 수 없는 노수좌 스님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 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대표 무여, 지환)는 4월 3일 조계종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수좌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수행문화 확산을 위해 수행복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 설립을 인가 받았다.

전국선원수좌회의 임원진은 의정 스님을 대표이사로 하며 원각 스님, 정찬 스님, 현묵 스님, 불산 스님 등 7명의 이사로 구성됐다. 선원수좌회 법인 설립에 다수의 스님들이 기금마련에 동참했다. 송담 스님(인전 융화선원장)은 7억 5000만원을 기부했고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은 400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스님들의 심의일만으로도 9억 3000만원의 재산출연금이 모아졌다.

65세이상 수좌스님 대상

의료 및 생활·간병비 지원

문경 봉암사 원로선원 건립

송담 스님 7억5천만원 기부

무여 스님은 “수좌스님들을 위한 복지가 마련됨으로써 정신·사회적 가치를 전승해 주는 참선수행자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며 “앞으로 스님들이 미래 사회와 국민의 정신적 건강에 햇불이 돼 전법교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참선 수행 지원 및 교육 ▷수좌들을 위한 의료, 노령 지원 ▷수행복지 연구 및 선 문화 전승 ▷선 문화 학술·출판 및 홍보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의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불교계 의료기관과 협약해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증 및 치료비가 많이 드는 수좌스님의 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의정 스님은 “지나겨울 7명의 스님에게 수술비를 지원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8명 수좌스님에게 수술비 3700만원을 후원했다. 올해부터는 비구니 스님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술을 받을 스님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수좌회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병원비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선원수좌회는 원로선원 입소지원안을 마련했다. 65세 이상의 노수좌 스님이 자유롭게 정진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에 원로선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총 4개 동의 건물이 완공될 계획이다. 이 밖에 불교노인요양원을 연계해 노스님들의 입소를 지원하고 불자호스피스 연계 및 간병비 지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국선원수좌회는 행정지원서비스와 장례제도 지원사업도 전개해 나간다.

의정 스님은 “선원수좌회는 장례제도비 지원 및 장제서비스 행정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좌복지 육구조사를 통해 홍보물을 간행하고 선 문화 출판물을 발행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과 나눔으로 수행하는 남자들이 병고와 노령, 사후 입적에도 걱정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031)771-4634 [관련기사 3면](#)

이나라 기자 oasis1983@hyunbul.com



“종로구 어르신 최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광)은 4월 6일 복지관 앞 마당에서 장기이용회원 소속감동진 및 신도인상 실천 프로그램인 ‘종로만이아(man) 3탄’을 개최했다. 개관 5주년 기념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종로만이아’ 1·2탄에 참여했던 250 명의 어르신들이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그동안 각자 모아온 동전 저금통을 선물상자에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차 모금액은 371만5061원으로 모금은 계속될 예정이다. [박재원 기자](#)

강정마을 화합에 불교계가 나선다

조계종 화쟁위, 강정마을서 생명평화법회 개최

불교계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혜경)는 4월 2일 강정마을 평화센터에서 강정마을 생명평화 법회를 개최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발파 작업이 강행되며 찬반주변 간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생명평화법회는 과반수 이상이 불자인 강정마을 불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이뤄졌다. 2일 도법 스님과 조계종 주요 스님들의 강정마을 주민들과 면담에서 강정 주민들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찬사라며 불교계가 나서주길 당부한 바 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 종회의원 장명 스님, 자성교쇄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이도흠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총장,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 현지에서 제주 관음사 부주지 동재 스님, 관촉사 주지 석연 스님을 비롯해 지역사찰 스님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정마을불자회(윤한범 회장), 제주포교사단, 대불련동회, 서귀포 불교대학 등에서는 150여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멀리 마라도 기원정사에서 주지 혜진 스님을 비롯해 신도 3명과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천주교

신부는 “강정마을 불자들이 많은 것을 들었고 드디어 불교계에서 이들을 보듬기 위해 왔다”며 “강정마을이 평화의 마을,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는데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단 차원의 평화적 사태해결 촉구도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공권력을 동원한 진압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행복 앞에선 어떤 논리도, 더구나 독단 독주에 의한 급격한 변화는 안된다”고 말했다.

화합에 대한 열띤 목소리에 2시간에 걸친 법회도 금방 끝이 났다. 이들은 윤경용 강정마을불자회 사무국장의 발원문 대표낭독에 이어 다과회를 가지며 논의를 이어나갔다.

윤한범 강정마을 불자회장은 “해군기지 건립 이전 법회에는 젊은 층들만 70여명이 참석하곤 했다. 이번 창립법회를 계기로 강정마을불자회는 매주 정기 법회를 열고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평화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모아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 강정마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4월2일 마을 불자회도 창립 법회 열며 갈등의 골 상처 치유

와 개신교, 원불교 측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먼저 “불교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그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종교지만 지금 이 마을에는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다”며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지 못해 깊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을 열었다.

강정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과 화합을 위한 당부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생명평화결사운영위원장 김경일

883호 CONTENTS

종단 “범이사·법주사 총림지정율”	2
종합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출석률 30% 조계종, 노동위 만든다	3
시방세계 통도사 극락암 극락선차 시연	5
문화 유나방송 개국 5주년 치유음악회	20



문화 유나방송 개국 5주년 치유음악회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부처님오신날 행사 북측 참여 4월 중 결정

남북불교교류 심양실무회담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북측행사의 북측 불교계가 참여가 4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는 3월 29-30일 중국 심양에서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민추본은 북측행사 초청을 성사시켜 남북불교교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경색 해소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조불련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북측행사 참가를 위한 남북방문 가능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북 불교계는 상호 내 부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 4월 중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실무회담에 남측에서는 민추본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 총무원 사회국장 묘장 스님, 실무진 등 4명이 참석했다. 북측은 조불련 중앙위원회 리규룡 서기장, 차급철 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나라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동섭 기자 celana@hyunbul.com

용안목 (龍眼木)

육환장, 주장자, 지팡이 특별 전시회

- 일시 _ 불기2556(2012)년 4월 12일(목) ~ 18일(수)
- 장소 _ 서울 관훈동 백악미술관 1층 ☎ (02)734-4205
- 문의 _ 신원사 금룡암 (041)852-9541, 011-752-1122(두타스님), 010-5026-5587(사자 문학)

용안목(龍眼木)은 다른 이름으로 천동목, 연수목(延壽木), 갑자목(甲子木), 벽뢰목(霹靂木)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나무의 분례 학명은 감태나무입니다. 특히 용안목 또는 천동목은 이 감태나무 중 비락을 맞아 나무에 마치 용의 눈처럼 여러 부분이 고르게 터져 나와 있는 것을 일컫으며, 옛날부터 큰스님들께서 주장자나 지팡이 또는 육환장으로 만들어 많이 애용하셨습니다. 소나무이 처음에 용안목을 찾아 나선 것은 은사스님께 지팡이를 하나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천성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산을 헤매면서 어렵게 용안목을 구해 은사스님께 지팡이를 만들어 드리고 계속해서 용안목을 모아 육환장과 주장자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은사스님께 수계를 받고 용안목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좋은 인연들과의 만남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기나긴 시간 동안 육환장과 주장자, 지팡이를 제작하게 되고, 오늘에 이르러서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신원사 금룡암 회주 두타

